

다니엘서 - 번호 141

교황권의 귀환과 제8대 대통령의 예언적 의미를 밝히기

Jeff Pippenger

2024-03-17

우리는 현재, 교황권이 일곱 머리 중에 속한 여덟째 머리로서 세상의 왕좌로 복귀하는 그 역사의 예언적 특징들을 매우 면밀히 살피고 있다. 이는 일곱 대통령들 중에 속한 여덟째 대통령이 교황적 짐승의 형상을 형성하는 일을 성취하는 때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예언적 특징들을 신중히 식별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에 대한 고찰을 갈멜산과 헤롯의 생일에서부터 시작했다. 이 두 가지 거룩한 예증은 미국에서 곧 임할 일요일 법령을 나타내며, 이는 다니엘서 11장 41절에도 나타나 있다.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며, 많은 나라들이 멸망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니엘 11:41.

그 구절에서 북방의 거짓 왕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영화로운 땅은 유다 땅이었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되었고, 이러한 이유를 비롯해 영화로웠다. 그 땅이 영화로웠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수도 예루살렘을 자신의 성전이 있을 곳, 곧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 택하신 도시로 정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 이름을 둘 성전을 세울 성읍을 택하지 아니하였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다스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게 하였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다스리게 하였노라. 역대하 6:5, 6.

유다의 문자적 땅은 문자적 고대 이스라엘에게 영광스러운 땅이었고, 미국은 유다의 영적 땅으로서 영적 현대 이스라엘에게 영광스러운 땅이다.

"주께서 그분의 백성이 자기 양심의 명령에 따라 그분을 예배할 수 있도록 피난처로 마련해 주신 나라, 오랜 세월 전능하심의 방패가 펼쳐져 있던 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앙을 맡겨 보존하게 하심으로써 은총을 베푸신 그 나라가, 그 입법자들을 통해 프로테스탄트주의의 원칙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함부로 손대는 로마의 배교를 두둔하게 될 때—바로 그때 죄의 사람의 최후의 일이 드러날 것이다." 시대의 징조, 1893년 6월 12일.

40절에서 가짜 북방의 왕이 1989년에 남방의 왕(구소련)을 정복한 후, 이어서 영화로운 땅(미국)을 정복한다. 41절에서 "countries"라는 단어는 삽입된 단어이며 완전히 정확하지 않은데, 이는 일요일 법령 때에 무너뜨려지는 "많은 이들"이, 일요일 법령이 오기 전에 일곱째 날 안식일과 태양의 날의 구별을 알고 있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안식일의 변경은 로마 교회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징 또는 표이다. 넷째 계명의 요구를 이해하고도 참된 안식일 대신 거짓 안식일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자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오직 그것을 명령한 그 권세에게 경배를 드리는 셈이 된다.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정하신 날을 대신하여 온 세상이 받아들인 교황권의 안식일이다.

그러나 예언에서 지정된 바와 같이 짐승의 표를 받을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시험의 때도 아직 오지 않았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제외하지 않고 모든 교회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다. 아무도 빛을 받고 넷째 계명의 의무를 깨닫기 전에는 정죄되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칙령이 공포되고, 셋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고 경고할 때, 거짓된 것과 참된 것 사이의 경계가 분명히 그어질 것이다. 그때에도 여전히 범죄를 계속하는 자들은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빠른 걸음으로 이 시기에 다가가고 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세속 권력과 연합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그것에 반대함으로써 가장 혹독한 박해를 견뎌야 했던 거짓 종교를 떠받치게 될 때, 교회와 국가의 결합된 권위에 의해 교황권의 안식일이 강제로 시행될 것이다. 국가적 배교가 일어날 것이며, 그것은 결국 국가적 파멸로만 끝나게 될 것이다. 성경 훈련 학교, 1913년 2월 2일.

머지않아 임할 일요일 법령 때에 무너질 "많은 이들"의 부류는, 그때를 위해 주어진 빛이며 교회와 나라들의 역사에서 전환점이자 위기가 되는 안식일의 빛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자들이다. 그 부류는 반역의 광야에서의 방황의 끝에 다다른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교회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영원히 주님의 입에서 토해 버림을 당한다.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란 1844년부터 1863년에 이르는 역사 속 첫 번째 가데스에서든, 또는 2001년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속 두 번째 가데스에서든, 셋째 천사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을 가리킨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어 끌고 나가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12-14.

1844년이든 2001년이든, 셋째 천사의 음성은 혼인 잔치로의 부르심이었다. 일요일 법령 때 무너지는 "많은 이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혼인예복을 거절하고, 대신 로마의 음녀와의 결혼을 치르는 열 왕의 혼인 잔치에 동참하는 "많은 이들"이다. 그 혼인에서는 사람은 자기 옷을 그대로 입고 있어도 되는데, 그들의 치욕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것은 열 왕 위에 군림하는 그 음녀의 성으로 불리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양식을 먹고 우리 옷을 입겠으니, 다만 우리의 수치를 제하러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게만 하소서. 이사야 4:1.

그들은 첫 번째 음식에 관한 시험에서 실패했다. 하늘의 떡 대신 자신들의 떡을 먹기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했던 두 번째 시험에서도 실패했고, 대신 자신들의 옷을 입기를 선택했다. 그들은 세 번째 시금석 시험에서도 실패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성품)을 거절하기로 선택하여 짐승의 이름(성품)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바벨론이 처음 언급될 때 니므롯이 도시(국가)와 탑(교회)을 세운 목적은 스스로 이름을 내고자 함이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되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어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11:4.

이름은 품성의 상징이며, 일곱에 속한 여덟째 짐승의 예언적 성격은 교회(탑)와 국가(도시)의 결합이 지닌 이중적 성격이다. 마지막 날들의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뉠 것이다.

"오직 두 부류만 있을 수 있다. 각 편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이거나 짐승의 표 또는 그의 형상의 표로 뚜렷이 표시된다. 아담의 각 아들과 딸은 그리스도 또는 바라바를 자신의 지휘관으로 선택한다. 그리고 불충의 편에 서는 모든 이들은 사탄의 검은 깃발 아래 서 있으며,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능욕한 죄를 지목받는다. 그들은 생명과 영광의 주를 고의로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지목받는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00년 1월 30일.

한 부류는 짐승의 형상을 대표하고, 다른 부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대표할 것이다. 한 부류는 그리스도의 혼인 예복을 입고, 다른 부류는 "자기들의 옷"을 입을 것이다. 한 부류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다른 부류는 "자기들의 떡"을 먹을 것이다. 자기들의 떡을 먹고 자기들의 옷을 고수하는 그 부류는 셋째 천사의 음성으로 부름받은 "많은 이들"을 대표하며, 그들은 곧 임할 일요일 법령 때 넘어질 "많은 이들"이다. 그들의 품성이 드러나는 일요일 법령의 위기 때 잃어버린 상태를 만회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로마의 음녀의 이름을 받아들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수치"를 없애 줄 것이라는 거짓된 희망이다.

그때에 택함받은 소수는 십사만 사천의 기치로 높이 들려지고, 이어 41절에는 또 다른 무리가 등장하여 거짓된 북방의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된다. 41절에서 '벗어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미끄러움으로 인해 빠져나간다는 뜻으로, 물속에서 비누를 쥐고 있다가 비누가 미끄러워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쓰일 때 의미의 핵심은, 빠져나가는 대상이 그 이전에는 빠져나오는 바로 그 존재의 통제 아래 있었다는 점이다.

41절에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삼중 연합이 이루어진다.

"미국의 개신교인들이 간극을 넘어 손을 내밀어 심령주의와 손을 잡는 데 가장 앞장설 것이다; 그들은 심연을 가로질러 손을 뻗어 로마 권세와 손을 맞잡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삼중 연합의 영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데 있어 로마의 전철을 따르게 될 것이다." 대논쟁, 588.

미국이 주일법에서 유엔과 교황권과 손을 잡을 때, 이전에 교황권의 손아귀에 있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 거짓 북방왕의 손아귀에서 "탈출"한다. 그 사람들은 이전에 교황권의 권세에 붙잡혀 있었다. 그들은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당시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죽음이나 구원을 기다리던 세례 요한으로 대표된다. 주일법 때 교황권의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는 이 부류는 세 지파로 대표되며, 따라서 현대 바벨론의 삼중적 구성을 상징한다.

바로 그때, 요한계시록 18장의 둘째 음성이 그 사람들에게 바벨론에서 도망쳐 나오라고 부르니, 이는 그때 시작될 바벨론의 심판에 동참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 둘째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이지만, 그때 큰 소리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고 있는 14만 4천의 음성을 대표한다. 손(북종의 상징)에서 벗어나는 자들은 거짓 북방 왕의 손에서 벗어나 그 후 참된 북방 왕의 손을 찾게 된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으며, 남성적 거짓 신인 바알은 국가를, 아스다롯의 선지자들은 교회를 대표한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로써 여섯째 왕국의 종말을 가리켰으나, 살로메로 상징되는 배교한 개신교의 종교는 여전히 존재했다. 살로메, 곧 배교한 개신교는 살로메의 모습으로 헤롯을 유혹하고, 열 왕들은 일곱 머리 가운데서 나온 여덟째 머리와 교회와 국가의 동맹을 맺기로 합의한다. 살로메는 근친상간을 저지른 헤롯이 마음으로 탐하는 대상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누구든지 마음으로 이미 그 여자와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28.

헤롯의 마음속의 근친상간적 음욕이 그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육체를 하나로 묶었고, 그리하여 그는 살로메와 한 몸이 되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창세기 2:24.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헤롯과 살로메는 하나가 되었고, 아합으로 예표된 헤롯은 북왕국의 열 왕들의 수장이다. 곧 임할 일요일 법령 때, 교회와 국가의 뿔들이 결합하여(짐승의 형상) 하나의 뿔이 되었던 그것이 엘리야에 의해 죽임을 당할 때, 땅의 짐승의 여섯째 왕국은 끝난다. 그런 다음 살로메는 헤롯을 유혹하여 그와 하나가 되고, 자신의 어머니(전 세계적 교회)에게 그의 왕국(전 세계적 국가)의 절반을 주도록 그를 설득한다. 그리하여 살로메는 아합과 그의 열 지파를 장악하게 되는데, 이는 열 왕이 모두 서로 의견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네가 본 그 열 뿔은 아직 나라를 받지 못한 열 왕들이니, 그러나 그들은 짐승과 함께 한 때 동안 왕으로서 권세를 받으리라. 이들은 한 마음을 품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17:12, 13.

그들이 권세와 힘을 넘겨주는 짐승은 음녀가 타고 있는 바로 그 짐승이다. 그 짐승은 그 형상의 성격을 상징하는데, 그것은 교회와 국가의 결합이며, 여자(교회)가 그 관계의 주도권을 쥐다. 이는 라틴식 결혼으로, 성은 아내의 성을 따르고, 여자가 남자 위에 군림하여 참된 혼인 관계에 반역한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고통과 잉태를 크게 더하리니, 너는 고통 중에 자녀를 낳을 것이요, 너의 사모함은 남편에게 있을 것이며 그는 너를 다스리리라. 창세기 3:16.

열 명의 왕들은 한마음 한뜻이다.

요한계시록 17:13-14 인용. '이들은 한 뜻을 가졌다.' 전 세계적인 연합의 결속, 하나의 큰 조화, 사탄의 세력들의 동맹이 있을 것이다. '또 그들의 권세와 능력을 짐승에게 주리라.' 이로써 종교의 자유, 곧 양심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를 거스르는 자의적이고 억압적인 동일한 권세가 드러난다. 이는 과거에 교황권이 로마주의의 종교적 의식과 예식에 순응하기를 감히 거부한 자들을 박해했을 때 드러났던 것과 같다.

"말세에 치러질 전쟁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배도한 모든 부패한 권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항하여 연합하게 될 것이다. 이 전쟁에서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 이는 안식일 계명에서 위대한 입법자께서 자신을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 밝히시기 때문이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성경주석, 983.

지도자가 아합 혹은 헤롯인 열 왕들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게 유혹되었다. 일요일 법령 때 살로메, 곧 배도한 개신교의 거짓 종교에 유혹되고 한때 성경 예언이 말하는 여섯째 왕국이었던 유엔은 열 왕의 왕국을 장악한다. 그 열 왕은 모두 자기들의 왕국의 절반을 가톨릭교에 넘기기로 동의한다. 모든 왕들이 살로메의 유혹적인 춤에 현혹되었기에 그들은 이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린다. 그들은 세레 요한으로 대표되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자신들의 연합된 힘을 투입하기로 합의한다.

짐승(유엔)은 으름가는 왕(이세벨의 딸)에 의해 통치된다. 이세벨은 자기 딸에게 헤롯과 다른 왕들과의 간통과 근친상간의 관계를 시작하라고 지시했으니, 그녀는 창녀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기 딸의 포주이다. 헤롯과 아합과 유엔은 거짓 선지자인 미국에게 미혹되었다. 미국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살해되자 여섯째 왕국이기를 그치고, 아스다롯의 선지자들(살로메)이 즉시 일곱째 왕국의 통치 권력이 되어, 미국에서 방금 이루어낸 것을 세계에서 그대로 복제한다.

짐승은 음녀의 딸과 관계를 맺고 있는 왕들이며, 음녀는 그 짐승을 다스리는 여자다. 예수께서는 시작을 통해 끝을 보여 주신다. 요한계시록 17장의 여덟 왕국에 대한 묘사가 다니엘서 2장의 여덟 왕국의 봉인을 풀었듯이, 짐승과 그 짐승 위에 타고 있는 여자는 처음이 마지막을 대표한다는 원리에 기초한 또 다른 예언적 진리의 봉인을 연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성경 예언의 왕국들에 대한 마지막 언급이며, 그러므로 성경 예언의 왕국들에 대한 첫 언급인 다니엘서 2장도 예언적 필연으로 여덟 왕국을 표상해야 하며, 그중 여덟째 왕국은 일곱에 속한 것이다. 이와 같이 17장에서 여인과 그 여인이 타고 있는 짐승에 대한 심판은 1798년에 있었던 음녀에 대한 첫 심판으로 표상되어야 한다.

천사는 요한에게 17장 서두에서, 큰 음녀와 그녀가 타고 있는 짐승에 대한 심판을 보여 주겠다고 알렸다. 음녀가 처음으로 심판받은 때는 교황권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아 끝의 때가 도래한 1798년으로 올바르게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예언적 역사에서 '끝의 때'가 제시될 때에는 항상 사람들로 상징된 두 개의 이정표가 있다. 아론과 그의 형제 모세의 출생은 그 역사에서의 끝의 때였다. 그 두 이정표는 세레 요한의 출생과, 여섯 달 뒤 그의 사촌 예수의 출생을 예표하여, 그 역사에서의 끝의 때를 표시했다. 1798년의 끝의 때를 예표하는 70년 포로 기간의 끝에서, 다리오와 그의 조카 고레스가 그 끝의 때의 두 이정표이다. 그들은 함께 1989년의 끝의 때에 레이건과 부시 1세를 예표한다.

밀러파 역사에서 다니엘서의 봉인이 풀린 '끝의 때'였던 1798년은, 가톨릭의 짐승의 정치적 요소가 예언적으로 죽음을 맞았음을 드러냈다. 나폴레옹의 장군 베르티에는 바티칸으로 곧장 들어가 교황을 체포했고, 그로써 가톨릭의 짐승의 정치적 권위를 종식시켰다. 그 이듬해인 1799년에는, 교황으로 대표되며 수세기 동안 그 짐승을 타고 온 여자가 포로 상태에서 죽었다. 음녀에 대한 심판에는, 그녀가 만국을 다스리기 위해 이용했던 그 짐승에 대한 심판이 포함된다. 요한계시록 17장은 그 짐승에 대한 심판과, 그 짐승 위에 앉아 그것을 다스리며 타고 있는 음녀를 함께 드러낸다.

“세상은 폭풍과 전쟁과 분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하나의 수장 곧 교황권 아래에서 백성은 하나님의 증인들의 인격 안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연합할 것이다.” 『증언보감』, 제7권, 182.

여덟째 머리, 곧 일곱에 속한 그것은, 짐승 위에 탄 창녀의 딸에게 지배를 받는 열 왕들로 이루어진 그 짐승 위에 군림하는 교황권이다. 여덟째 왕국의 요소들, 곧 일곱에 속한 그것은, 짐승의 형상이 미국 안에서 형성될 때, 일곱 대통령에 속한 여덟째이자 마지막 대통령에게서 나타나야 한다. 공화주의와 개신교의 배도한 뿔들의 결합은 짐승의 형상을 다스리는 "머리"를 가져야 하며, 그 통치자는 유례없는 독재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아삽의 시, 곧 노래. 하나님이며, 잠잠하지 마소서. 하나님이며, 묵묵히 계시지 마시며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소동하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대적하여 간계로 꾀하며 주의 감추신 자들을 치려고 서로 의논하였나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그들을 나라로서 끊어 이스라엘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않게 하자 하였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연합하였나이다. 에돔의 장막들과 이스마엘 족속과 모압과 하갈 사람들과,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과, 블레셋과 두로의 거민들이며, 또한 앗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들이 롯의 자손을 도왔나이다. 셀라. 시편 83:1-8.